

# 도대체 데비는 어떻게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아냈을까

수리아의 검-IV  
고지연 불교 판타지 소설

## 철의 산 차크라발라 (9)

무니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검 조각을 샅했다. 진주처럼 생긴 그것은 어둡한 방 안에서도 오묘한 색깔을 보이고 있었다. 무니는 집게손가락으로 그걸 비벼도 보고 툇겨보기도 하면서 공리에 빠졌다. 그때 몸에 뭔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검 조각을 문지르던 손이 점차 투명해졌던 것이다. 무니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번개가 얼굴 위로 번쩍하고 빛을 내뿜었다. 무니는 다시 자신의 손바닥을 살폈다. 여전히 손은 사라진 채, 검 조각만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밖에서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사흘째 비였다. 수아나 가족들도 차크라발라에 이렇게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건 처음 본다 했다. 이곳 사람들은 곳은 날씨 때문에 밭일이 여의지 않아 걱정이 될 뻔한데도 별 다른 근심이 없어 보였다. 하긴 애초에 '격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곳이니 말해 무엇 하겠는가. 오히려 그들은 조에게 먹일 보리 겨가 잔뜩 쌓여있고, 빵을 만들 보릿가루도 넉넉하니 언제나 '지금이야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에게 '격정'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모두들 자신들의 걱정 그리고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수아나가 저녁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보리밭의 물길을 살펴본 건 오빠 수아킴을 찾아오겠다며 나간 것이 소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난다는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걸어 다니다가 창밖을 내다봤다. 컴컴한 바깥엔 세찬 빗줄기 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찾으러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난다가 나크를 통해 말을 전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수아나의 아빠가 결심한 듯, 수아킴을 보며 말했다.

"나아가보자꾸나. 수아나는 아마도 너와 같이 어긋나 헤매고 있을 게다. 몇몇 형제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겠지."

부정적인 단어라고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곳에도 금기시 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해가 진 다음의 외출이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차크라발라에는 '밤은 악령들의 시간'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 왔다. 그러나 인간 쪽에서 그들의 영역과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다면, 악령은 인간들에게 무해한 존재였다.

"그래도 여보!"

수아나의 엄마가 비웃을 쟁겨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서려던 남편의 옷깃을 붙잡았다. 얼얼한 근심이 가득하였다. 남편은 그녀의 손을 한 번 잡아주더니 다시 문고리를 잡았다.



삽화 · 김홍인

"저도 함께 가겠어요!"

난다가 나크를 통해 말했다. 가족 모두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때 수아킴이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난다에게 함께 가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남자 셋 그리고 정령은 낯선 비와 어둠 속으로 발을 디뎠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만에 열리는 경우는 없었다. 비 내리는 소리가 그만큼 세차기 때문이다. 이웃들 모두 수아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의 유대관계는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내 자식, 남의 자식을 구분 지어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다. 수아나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모두의 자식이나 다름없는 아이였다. 그들 대부분은 부탁도 하기 전에 나갈 채비를 했다. 물론 그들 중에도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다. 수아킴은 난다에게 그들은 원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며, 그래도 문을 두드린 이유는 모두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들에게만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난다는 이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섬세해 할까 배려하는 수아나의 가족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몇몇 무리로 나누어 수아나를 찾아냈다. 수아킴과 난다는 차크라발라 계속으로 통하는

동굴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어두운 동굴 속을 등불도 없이 익숙하게 걸어가는 것에 반해, 난다는 발을 헛디디기 일쑤였다. 보다 못했는지 수아킴이 "자!" 하며 손을 내주었다. 난다는 그의 손에 의지해 어둠 속을 더듬어 걸었다. 터벅터벅하며 동굴 속을 살피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들려왔다. 난다는 수아킴의 끈직한 손이 어찌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누군가 자신의 옷깃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이어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려왔지만, 난다의 귀에는 잘 들리지 않았다.

"그 여자애를 찾은 거야."

바로 옆에서 나크가 속삭였다. 수아킴은 벌써 난다의 손을 놓아버리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동굴의 입구 쪽인 듯, 어둠이 열린 지점이었다. 난다도 그곳을 향해 곧바로 달려갔다. 급한 마음에 발을 헛디디기 사이도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또 심한 한 곳을 아프게 찔렀다. 역시 나크의 말대로였다. 동굴 입구의 커다란 바위 뒤에서 비를 맞으며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 수아나였다. 사람들을 밀쳐내고 바위 옆으로 다가간 난다의 눈에 축 늘어선 수아나의 손이 들어왔다. 작고 따뜻한 바로 그 손이었다. 난다는 그 손을 쥐어보았다. 차가웠다. 난다는 그 온도의 의미가 다시는 그 손을 잡을 수는 없

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무니는 소란스러운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다. 잠에서 깬 칸타카 역시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 살해당한 여자 아이의 장례 의식이 있는 모양이었다. 처음에 그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었다. 이야기를 들려줄 때 난다는 무척 슬프고 지쳐 보였으며, 화가 나 있었다. 무니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있었다. 세라를 닮은 예쁘고 귀여운 아이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니는 무엇보다도 데비가 걱정됐다.

"도대체 누가 두 사람을 죽인 걸까, 칸타카?" 칸타카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박였다. "그 자를 찾아야 이곳을 떠날 수 있을 텐데."

무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난다의 모습도 보였다. 수아나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무니의 마을에서도 죽음이라는 사건은 몹시 슬픈 것이었지만, 그 현상 자체에는 텅텅했다. 그들에게 죽음은 종말이라기보다는 단지 긴 이야기의 한 단락이 끝난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은 이는 이웃의 손이나 들뜬에 쫓겨 다시 태어날 수도 있었다. 차크라발라 사람들의 생각도 이와 별남

르지 않았다. 문제는 수아나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려 하지 않았다. 난다의 불만은 바로 이것이었다. 아마 수아나를 죽인 사람을 찾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무니는 창고의 구석 쪽을 돌아봤다. 거기에 무니 자신 역시 이곳을 쉽게 떠나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잠들어 있었다. 세상 모르고 폭 잡 든 데비였다. 수아나라는 아이가 죽은 채 발견 됐다는 그날, 무니가 갇혀있던 창고를 두드렸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도대체 데비는 어떻게 자신이 있는 곳을 찾아냈을까. 처음 창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는 바람 소리인 줄로만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나 난다가 밤중에 무니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방 "칸타카 거기 있어? 칸타카?"라는 데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니는 데비에게 칸타카와 자신이 여기 있음을 알려주고,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말했다. '실마 문 여는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역시나 데비는 한참이나 문고리를 씨름을 했다. 또 다시 번쩍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치는 순간, 창고 문이 활짝 열리더니 데비가 나타났다. 그녀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온 것인지, 거의 빗방울을 묻히지 않은 상태였다. 대신 옷 여기저기에 뭐가 튀었는지 얼룩덜룩했다. 그 오염물은 데비가 흠뻑을 쓸어 올릴 때마다 이마와 코끝에도 흐릿한 흔적을 남겼다.

"너 이거 뭐냐?"

그 질문에 데비는 자신의 옷과 손바닥을 쳐다봤다. "이거 피야.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애를 밀었어. 여자애가 그 사람을 몰래 보고 있었거든. 그리고 머리에 피가 났어."

무니는 깜짝 놀라 데비에게 좀 더 다가갔다. "무슨 소리야? 누가 누구 밀었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애를 밀었다고! 못 알아들은 거야?"

데비는 어느 새 칸타카 옆에 딱 붙어 서서 한심하다는 듯 무니를 쳐다봤다. 무니는 그런 데비의 표정은 무시하고 일단 사건에 물을 적었다. 손과 얼굴에 묻은 피부터 닦고 볼 일이었다. 어떻게 비에 젖지도 않고 여기까지 찾아왔는지 물어봤자 제대로 대답할 리도 없었다. 아무튼 지금 그 데비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쿨쿨 자는 중이었다. '속편한 녀석 아니냐?' 데비는 누군가 그 소녀를 죽이는 장면을 목격했고 그는 분명 이 마을 사람이었다. 전체 주민을 불러놓고 자신이 본 사람이 누구인지 데비에게 고르라고 할 수도 있었다. 그 사람 역시 데비를 봤을 지도 모르니 어쩌면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인 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 세 명은 차크라발라에서 낯선 존재였다. 가족처럼 푹푹 뭍혀서 사는 마을 사람들이 데비의 말을 그대로 믿어줄지 의문이 들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옷에 묻어 있는 피가 신경 쓰였다. 이 방인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지는 남카네 마을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오히려 그들이 범인으로 몰릴 지도 몰랐다. 무니는 난다가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딱 전 그의 손 안에는 진주 모양의 세 번째 검 조각이 들어있었다.

<p><b>불자 정보</b> 856호   TEL 02) 2004-8215(직) 732-1522 FAX 02) 737-0696</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분당인접</li> <li>• 대지 면적 약 2500평</li> <li>• 건물평수 50평짜리 2동</li> <li>• 등산로 인접, 전망, 터 최고</li> <li>• 국유지 약 2만평 인접</li> <li>• 산책로로 사용가능</li> <li>• 가액: 건물포함 평균 95만원 (용자 10억)</li> <li>• 중환자식숙, 요양시설로도 적격</li> </ul> <p>011-726-4711</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li> <li>• 1층 요사채 30평</li> <li>• 2층 요사채 24평</li> <li>• 3층 법당 24평</li> <li>• 주차가능, 즉시법회가능</li> <li>• 대지 82평</li> <li>• 가액: 3억 1천 만원</li> </ul> <p>010-2637-6144</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경남 고성군 대가면 고성 IC 10분거리</li> <li>• 평수 168평, 실평수 300평</li> <li>• 조립식법당 20평, 삼존불</li> <li>• 각종 행사 시설완비</li> <li>• 요사채 15평, 산신당 6평, 용왕당 4평</li> <li>• 스님방 3평, 수도, 수세식 화장실 2개</li> <li>• 물만 들어오시면 됨</li> <li>•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li> <li>•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li> </ul> <p>010-4618-7063</p>	<p><b>전원주택형 토굴안자 (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30분</li> <li>• 대지 500평</li> <li>• 건평 128평</li> <li>• 2층 양옥 1채, 단독1채, 창고1채</li> <li>• 가액: 4억 5천만원(절충가능)</li> <li>• 금강이 앞에 흐르고 경관수려</li> </ul> <p>010-8677-2868</p>	<p><b>포교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남 천안 터미널 앞</li> <li>• 주공2단지 부근</li> <li>• 평수 30평</li> <li>• 법당, 상담실, 공양간</li> <li>• 가액: 1천 5백만원, 월 40만원</li> </ul> <p>010-3240-3272</p>	<p><b>포교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서울 영등포구 당산4가 73-5번지(지하)</li> <li>• 영등포구청 옆, 지하철 2-5호선 3번출구</li> <li>•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산신4분</li> <li>• 보종금 5백만원, 시설비 5백만원 할 환만원</li> <li>• 월세 25만원, 수도비, 청소비 3만원 월 28만원</li> <li>• 저렴하게 양도</li> <li>• 평수 약 30평, 법당, 방2개, 화장실, 주방</li> </ul> <p>02)2671-7941주최성공할당 010-3266-9350</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하동</li> <li>• 총 800평, 법당20평, 요사채3방4, 큰 창고, 관상용 양어장</li> <li>• 주차시설 완비</li> <li>• 비구니스님기도처로최고명당</li> <li>• 가액: 2억</li> </ul> <p>010-3138-4897</p>	<p><b>포교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전시내 2층 60평</li> <li>• 아미타불, 관세음, 대세지, 지장보살</li> <li>• 신중, 산신, 영가단 각단후불탱화</li> <li>• 법당, 스님방, 상담실, 공양간</li> <li>• 가액: 보종금 1천만원 월 20만원</li> <li>• 시설비 2천만원, 시설완벽</li> </ul> <p>010-6278-1488</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광주광역시 근교</li> <li>• 토지: 무상임대 약 700여평</li> <li>• 건물: 법당 20평(등기)</li> <li>• 요사 방2개, 식당방 1개</li> <li>• 산을 끼고 물 좋은 마당까지 차량 진입</li> <li>• 가액: 1억</li> <li>• 꼭하실분만, 장난전화사절</li> </ul> <p>010-2692-5967</p>	<p><b>도심포교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453번지 의창빌라 상가 2층</li> <li>• 평수 54평, • 방3, 및 주방 화장실</li> <li>• 시설 고급, 모든시설완비</li> <li>•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호신불100불</li> <li>• 비구니스님도 가능</li> <li>• 가액: 보종금 1천만원, 월 35만원</li> <li>• 시설비: 700만원</li> </ul> <p>010-8211-8590 010-8602-3990</p>	<p><b>임법당(토굴)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하동군 고전면 신월리</li> <li>• 평수 330평, 전망 좋음</li> <li>• 심야보일러</li> <li>• 수행정진하기 좋은 곳</li> <li>• 총가액: 5500만원</li> </ul> <p>010-4144-6846</p>	<p><b>암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의령군 공유면 자갈산 부자골</li> <li>• 대지 330평, 건물 70평</li> <li>• 천신기도도량</li> <li>• 마당 앞 바로 계곡 있음</li> <li>• 가액: 상담 후 조절</li> </ul> <p>055)573-8802 010-8904-9284</p>	<p><b>포교원(급)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남 밀양기차역 옆 10분</li> <li>• 5층건물중 2층 전체(약 70평)</li> <li>• 삼존불, 신중, 산신탱화, 영단</li> <li>• 연등LED 300구 냉, 온풍기(전정형)</li> <li>• 방2개, 공양간, 남녀 화장실</li> <li>• 보종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포함 2천만원)</li> <li>• 물만 오시면 즉시 법회함(현재 법회중)</li> <li>• 모든 주방용품(1300인분) 인계함</li> </ul> <p>011-212-7709</p>
<p><b>영천 토굴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영천시 고경면 시내에서 10분 이내</li> <li>• 2차선에서 100M 이내</li> <li>• 남향이며 마을 끝, 산자락에 붙어 있어 조용하고 양명한국</li> <li>• 기와집 1동, 황토집 1동, 대지 500평</li> <li>• 가액: 8천만원</li> </ul> <p>011-505-6505</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충북 청원군 가덕면 병암리</li> <li>• 1층 요사채 35평, 2층 법당 11평, 산신각 3평, 대지 90평</li> <li>• 외부: 5층석탑, 미륵존불, 양쪽 석등, 1자반 약사여래불</li> <li>• 주차시설완비</li> <li>• 가액: 1억 6천 5백만원</li> </ul> <p>010-4085-1119</p>	<p><b>사찰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경북 영천 시내</li> <li>• 대지 190평</li> <li>• 산신각, 용왕당</li> <li>• 대웅전(23평), 종각</li> <li>• 요사채</li> <li>• 가액: 1억 7천만원 (시설비 포함)</li> <li>• 몸만 오시면 됩니다</li> </ul> <p>010-6787-6624</p>	<p><b>임법당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강릉시 사천 해수욕장 뒤 (낮은등산로속)</li> <li>• 최고의 위치, 큰불사 할수 있는 명당터임</li> <li>• 사용대지 약 200평, 야채밭 약 80평(1년 도지 20만원)</li> <li>• 법당의 방 4개, 화장실2, 목욕탕1</li> <li>• 삼존불, 후불탱, 신중탱, 산신탱, 종 집기 일체</li> <li>• 양도가액: 4350만원</li> </ul> <p>010-2461-3014</p>	<p><b>농가주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 35평</li> <li>• 건물 11평</li> <li>• 시골에서 살고 싶은 분은 선택하세요</li> <li>• 가액: 1천 8백만원</li> </ul> <p>054)982-4949 010-4534-4949</p>	<p><b>포교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울산 중구 태화동 782-2</li> <li>• 지상2층 건물 2층 50평</li> <li>• 법당, 공양실, 방2개</li> <li>• 보종금 1천만원, 월 50만원</li> <li>• 시설비: 2천만원(조절가)</li> <li>• 주차장있음, 최고 위치</li> </ul> <p>052)222-6023 011-858-0306</p>	<p><b>포교원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대구 북구 읍내동</li> <li>• 2층 약 50평, 방3칸, 주방, 욕실</li> <li>• 최고위치 최고시설</li> <li>• 보종금 1천만원 월 40만원</li> <li>• 시설비 답사 후 절충</li> </ul> <p>010-9199-7897 053)311-9686</p>